



서재덕(예나대)

1. 들어가는 말

20세기 초 궁켈(H. Gunkel)은 17세기 이후로 성서비평의 가장 중심에 있던 역사비평적 시편 연구를 양식사(Formgeschichte)를 통해 개진한다.¹ 그는 양식사적 분류를 통해 시편 46; 48; 76; 84; 87; 122; 132편을 시온시로 분류한다.² 시온 시편이라는 ‘장르’(Gattung)의 등장과 더불어 심화된 시온 신학은 현재 구

1 H.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1-31;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제15권 2호 통권 32집 (2009년 6월), 63.

2 H. Gunkel, *룻길*, 42, 81.

약 신학의 한 부분을 이루며 성전 신학과 같은 신학으로 이해되어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된다. 예를 들면, 방케(R. M. Wanke)는 두 신학을 같은 신학으로 이해하여 “시온-성전 신학”(Zion-Tempeltheologi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³ 더 나아가 로이엔베르거(M. Leuenberger)는 시온 신학을 성전 신학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한다.⁴ 두 학자의 신학적 견해는 시온 신학과 성전 신학을 같은 신학으로 보는 현재 구약신학의 연구 동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처럼 두 전승을 하나의 신학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두 장소의 신학적 유사성에 기인한다.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거할 곳으로 선택한 장소이다. 따라서 구약은 두 장소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서술한다(시48; 135). 또한 성서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시온의 몰락과 동일하게 그려지는 것처럼(렘26:18; 미3:12), 두 장소는 운명을 함께 한다.⁵ 두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서 지니는 신학적 동일성은 시편 99편 1-2절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구약은 두 장소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묘사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이 두 신학을 같은 신학으로 이해하거나 하나의 전통에서 기원한 신학으로 이해하는 현재 연구 동향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온과 성전의 공간적 이해를 살펴 볼 때, 두 신학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점은 두 신학이 서로 다른 전승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소고는 성전 신학과 구분되는 시온 신학의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가장 먼저 시편 48편을 중심으로 두 신학

3 R.M. Wanke, *Praesentia Dei: Die Vorstellungen von der Gegenwart Gottes im Hiobbuch* (BZAW 421; Berlin/New York: de Gruyter, 2013), 35-46, 72.

4 M. Leuenberger, “Großkönig und Völkerkampf in Ps 48 Zur historischen,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n Verortung zweier zionstheologischer Motive”, A. Grund (ed.), *Ich will dir danken unter den Völker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2013), 143.

5 G. Fohrer, *Studien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und Geschichte* (1949-1966) (BZAW 115; Berlin: de Gruyter, 1969), 222-225.

의 공간적인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⁶ 이는 시편 48편이 시온 신학과 성전 신학의 공간적 이해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두 신학의 공간적 이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시온 신학의 기원을 고대 근동의 도시와 성전의 공간적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세상의 중심으로서 시온과 성전

시편 48편은 시온에 관한 전승을 담고 있다. 특별히 2절은 시온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이라 표현한다. 일련의 수식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온은 신학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위의 수식어에 곧바로 이어지는 **יְבֵרֶת**(차폰/북쪽)은 가장 눈에 띈다. 이 표현을 방위적 의미인 ‘북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시온에 관해 앞서 서술된 정황으로 볼 때 이 표현이 단순히 방위를 나타내고자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이 사용된 신학적인 의도는 우가릿 문헌의 도움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문헌 속에서 차폰은 우가릿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서(Jebel el-Aqra)⁷ 바알(또는 엘)의 거처로 나타난다(KTU 1.40).⁸ 따라서 우가릿 문화권은 주신(主神)의 거처인 차폰을 세상의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편 48편에서 시온을 “차폰”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 시온이 지니는 특별한 위치를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인 정황은 **יְבֵרֶת**(야르케테/끝자락)에서 분명해진다(비 사14:13). 물론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높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 또한 코흐(Koch)는 이 표현을 산맥의 끝자락으로 주장한다(사

19:1,18; 왕하19:23; 사37:24).¹⁰ 따라서 시온을 지리상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차폰의 가장 남단에 끝자락에 위치한 산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יְבֵרֶת**(야르케테/끝자락)은 시온과 차폰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즉, 시편 48편 2절은 세상의 중심으로서 시온의 특별한 지위를 노래하며,¹¹ 이는 구약에 퍼져 있는 시온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다.¹²

시온을 세상의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¹³ 48편 2절은 시온을 세상의 중심으로 표현하지만 9절은 그러한 시온의 지위가 예루살렘 성전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다. 성전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전의 공간적 이해와 맞물린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전 이해는 시편 150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본문의 성소와 궁창은 각각 예루살렘 성전과 하늘의 성소로 이해할 수 있지만,¹⁴ 이 두 장소는 별도의 공간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이며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공간적인 특징을 반영한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공간적인 양상은 창세기 28장의 베엘 전승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 구약시대에 존재하던 성전(성소)의 공간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야곱의 꿈속에

1932), 14-15.

10 K. Koch, “Hazzi-Şafön-Kasion: Die Geschichte eines Berges und seiner Gottheiten”, F. Hartenstein (ed.), *Der Gott Israels und die Götter des Orients. Religionsgeschichtliche Studien II* (FRLANT 21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122-23.

11 M. Lichtenstein, *Von der Mitte der Gottesstadt bis ans Ende der Welt: Psalm 46 und die Kosmologie der Zionstradition* (WMANT 139; Neukirchen-Vluyn: Neukirchner, 2014), 242.

12 구약성서에 내재된 세상의 중심으로서 시온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허경택, “제사장-왕을 통한 야훼의 통치 - 시편 110편의 해석과 적용”, 『구약논단』 제23권 4호 통권 66집 (2017년 12월), 164-65.

13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 놓인 법제와 관련이 있다. 박중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전승”, 『구약논단』 제9집 (2000년 10월), 173.

14 시편 150편 1절의 **בְּקוֹל שֹׁמַיִם**(베릿소/그의 성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내부를, 반면에 **בְּקוֹל יְהוָה**(비르키아/궁창에서)는 하늘의 성소 내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U. Rechberger, “Zwischen individueller Klage und universalem Lob: Die Psalmen 22-24 als ein für den Psalter exemplarisches Itinerar eines Gebets-Pilgerweges”, U. Berges (ed.), *Zur Theologie des Psalters und der Psalmen* (BBB 18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53.

6 시온이라는 명칭의 기원은 사무엘하 5장에서 등장한다. 그렇지만 시온이라는 명칭이 주로 언급되는 본문은 대에 언서와 소에언서와 시편이다. 시온 시편이라는 분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편은 다양한 시온 신학적 주제들을 포함한다.

7 E. Lipinski, Art. **יְבֵרֶת**, *ThWAT VI*, 1096.

8 왕대일, “시편의 신학: 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제15권 2호 통권 32집 (2009년 6월), 24-25.

9 O. Eißfeld, *Baal Zaphon, Zeus Kasios und der Durchzug der Israeliten durchs Meer* (Halle: M. Niemeyer,

등장하는 사다리는 신적인 공간인 하늘과 인간 세계에 위치한 성전을 연결하는 상징 혹은 축(axis mundi)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⁵ 즉, 창세기 28장의 사다리는 성전을 신화적 세계와 인간 세계가 중첩된 장소로 이해하는 고전적인 성전 신학이 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약은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을 신화적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세상의 축' 또는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자리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언급되는 두 곳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거하심과 상응하여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3. 성전과 시온의 공간적 이해

1) 수직적인 공간으로서 성전과 시온

구약은 성전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בית(바이트/집) 또는 הֵקָל(헤칼/궁전)로 표현한다.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에 거주하신다는 고대 근동의 신관을 반영한다.¹⁶ 또한 구약에서 성전은 '성소'로도 불린다. 상기 기술된 표현들은 원칙적으로 성전이 그의 임재와 연결된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초월적이며 동시에 내재적인 그의 성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하심에 따라 '초월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 바로 성전을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신화적 공간', 혹은 '하늘'과 '지하 세계'가 맞물려 있는 수직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초월적 공간인 성전의 특징은 시편 29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편 29편은 찬양시로서 성전에서 좌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성전은 '초월적 공간', 즉 '신화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편 29편 1-2절과 9절 후반절은 우가랏의 엘 전승을 연상케 한

다.¹⁷ 우가랏 문헌에서 주신(主神)인 엘¹⁸은 자신의 궁전이 집인 차폰에서 신들을 거느리고 그들 앞에 좌정하는 것으로 묘사된다(KTU 1.65,1-3). 엘 전승을 토대로 시편 29편은 하늘에서 신하들에게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 9절에 언급된 성전은 신화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성전의 수직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3절 후반절과 9절 상반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두 절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장소로서 מַיִם מִבְּיַם (마임 랍빔/맑은 물)과 מַיִם מִבְּיַם (맘뵐/홍수)를 언급한다. 두 표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이르지글러(H. Irsigler)의 견해로 볼 때 이 둘은 모두 인간세상과 구별되는 신화적인 공간과 연결된다. 그에 견해에 따르면 두 표현은 고대 근동의 천상의 바다에서 기원한 물, 혹은 심연에서 기원한 태초의 홍수의 물로 이해할 수 있다.¹⁹ 즉, 본문의 '물 모티브'는 수직적인 공간으로서 성전의 공간이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²⁰

마찬가지로 시편 68편에서도 성전 신학이 예루살렘 성전의 수직적 공간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편 68편은 구약에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세 장소인 시나이산과 바산과 예루살렘을 주요 무대로 삼는다. 그 중에서도 바산에 관한 기록에서 북 이스라엘 성전 신학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²¹ 본문의 15절에서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자 높은 산"으로 소개된다. 먼저 하나님의 산으로서 바산은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별한 공간이며, 동시에 높은 산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산은 인간 세상과 구분되는 수직적 공간의 '높

15 B. Rebigier, "Das Leitermotiv in der Hekhalot-Literatur", K. Herrmann (ed.), *Jewish Studies Between the Disciplines - Judaistik zwischen den Disziplinen* (Leiden/Boston: Brill 2003), 227, 235.

16 강승일,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간", 『구약논단』 제15권 4호 통권 34집 (2009년 12월), 127.

17 H. Spieckermann, *Heilsgegenwart. Eine Theologie der Psalmen* (FRLANT 14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178.

18 주신인 엘은 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KTU 1.65,1-3은 서로 가족으로 구성된 신들의 모임을 묘사한다.

19 H. Irsigler, "Der Königsgott erscheint, Zur Syntax und Semantik von Psalm 29", H. Rechenmacher (ed.), *Im Memoriam Wolfgang Richter* (ATSAT 100; St. Ottilien: Eos Verlag, 2016), 179.

20 B. Janowski, "Der thron auf dem Kreis der Erde (Jes 40,22): Zur Logik des biblischen Weltbilds", B. Janowski/Chr. Schwöbel (eds.), *Der entgrenzte Kosmos und der begrenzte Mensch* (Neukirchen-Vluyn: Neukirchner, 2016), 11-12, 14-15, 25.

21 I. Knohl, "Psalm 68: Structure, composition and geography",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2/5 (2012), 12.

이(Höhe)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바산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산으로 여겨지는 헤르몬 산이 위치한 곳으로서 종교사적으로도 거룩한 장소(성소)로 이해되었다.²² 더욱이 **רִבְעִים**(잡누넵/높은 산)은 오직 이 본문에서만 사용되는데, 이 표현의 자음은 우가릿어 *gb*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내비친다. 이 표현은 우가릿 문헌인 KTU 1.1 V 13에서 산 정상에 놓인 신의 공간을 가리킨다.²³ 따라서 시편 68편 15절의 높은 산이란 표현은 바산의 물리적 높이가 아닌 신화적 공간으로서 높이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본문의 22절에서는 바산의 수직적 공간으로서 '깊이'(Tiefe)를 보여준다. 22절은 “바산”과 “깊은 바다”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등장하는데, 바산을 깊은 바다와 나란히 놓음으로써 두 장소를 모두 하나님의 원수의 피난처로 묘사한다.²⁴ 바산을 수직적 공간의 깊이를 상징하는 장소로 간주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신화적인 의도는 고대 근동의 바산에 대한 지리적 상징성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바산은 지하 세계로 연결되는 입구로서 여겨졌다. 이러한 바산의 지리적·종교사적 의미는 우가릿의 제의 문헌인 KTU 1.1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헌은 우가릿 왕의 대관식을 기술하는데, 새롭게 등극하는 우가릿의 왕은 바산의 야슈타투(Ašartu)에 위치한 신전으로 가서 지하를 다스리는 신 라피우(Rapi'u)에게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는다.²⁵ 마찬가지로 구약의 **רַבְעִים**(르바임)이란 표현(사 14:9-10, 26:13-14)에서도 죽은 자들의 세계와 연결되는 바산 전승이 단편적으로 드러난다.²⁶ 즉, 22절에서 바산은 성소의 수직적 공간으로서 '깊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시편 68편은 예루살렘 성전 신학이 북 이스라엘의 바산 전승을 수용함으로써 기존 예루살렘 성전이 지니는 수직

22 H. Niehr, "Die rapi'ūma/rephā'im als konstitutives Element der westsemitischen Königsideologie. Herkunft - Rezeptionsgeschichte - Ende", L.C. Jonker/G.R. Kotzé (eds.), *Congress Volume Stellenbosch 2016* (VT.S 177; Leiden-Boston: Brill, 2017), 148-49.
 23 [at zd]rq gb "당신은 산 정상에 작은 방을 갈망한다."
 24 K. Seybold, *Die Psalmen* (HAT 1/1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261-62.
 25 H. Niehr, *윗글*, 149-52.
 26 *윗글*, 170-73.

적 공간의 의미인 '높이'와 '깊이'와 더불어 수직적 공간의 '깊이'의 범위가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도 아우름을 보여준다.

시온의 수직적 공간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과 동일하다. 이러한 수직적 공간으로서 시온의 의미는 다음의 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온을 하나님의 거처로서 서술하는 구약의 표현들이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יְהוָה**(사칸/거주하다)이다(시99:2; 132:13; 135:21; 욥3:17,21²⁷; 숙8:3).²⁸ 이외에도 시편 9편 11절은 **מִצִּיּוֹן**(야삼/좌정하다)이란 표현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심을 표현하고,²⁹ 시편 76편 2절은 시온을 하나님의 **מִצִּיּוֹן**(마온/거처)로 서술하기도 하며(비, 신33:27),³⁰ 99편 2절은 전치사 **בְּ**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거하심을 노래한다. 또한 시온의 호칭에서 수직적 공간의 특징이 드러난다. 시편 48편 2절과 이사야 14장 13절은 시온을 **יְהוָה יְהוָה**(야르케테 차폰/북쪽)로 부르는데 이 표현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시온이 지니는 수직적 공간의 의미를 반영한다.³¹ 이처럼 시온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수직적 공간의 특징을 지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로서 시편 48편과 68편³²과 84편은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시편 48편과 68편은 시온에 맞추어진

27 **יְהוָה**(사칸/거주하다)이 분사형으로 표현된 요엘 2장 21절은 하나님 임재의 "영속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신학이 종말론적인 신학과 결합함을 보여준다. 특별히 이 단어는 성전 신학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표현이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홍성혁, "요엘 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아해의 시온 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제20권 2호 통권 52집 (2014년 6월), 201.
 28 B. Janowski, "Die Einwohnung Gottes in Israel. Eine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Skizze zur biblischen Schekina-Theologie", B. Janowski/E. Popkes (eds.), *Das Geheimnis der Gegenwart Gottes* (WUNT 318; Tübingen: Mohr Siebeck, 2014), 10-14.
 29 C. Körtgen, *Zion in den Psalmen* (FAT 48; Tübingen: Mohr Siebeck, 2006), 45.
 30 **מִצִּיּוֹן**(마온/거처)은 본디 들짐승의 보금자리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를 토대로 안전한 장소를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음을 참고하라 H.D. Preuß, Art. **מִצִּיּוֹן**, *ThWAT IV*, 1028.
 31 M. Krusche, *Göttliches und irdisches Königtum in den Psalmen* (FAT II 109; Göttingen: Mohr Siebeck, 2019), 91 각주 46.
 32 시편 68편 18절의 **רַבְעִים לְעֵלְיָהּ**(알리타 람마를/당신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는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서술한다. J. Jeremias, *Das Königtum Gottes in den Psalmen* (FRLANT 14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77.

초점을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다. 이를 통해 시온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편 84편은 특별한 표현을 통해 시온과 성전을 동일시한다. 84편 7절 하반절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의 용례를 토대로 기도자가 성전을 찾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³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는 표현 뒤에 이어지는 “시온에서”라는 말은 기도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은 성전이 시온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2) 수평적 공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

예루살렘 성전은 수직적 공간인 동시에 수평적 공간이기도 하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신화적인 공간이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의 세계에 지어진 하나님의 공간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공간이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공간이다. 만남의 구체적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공간이다. 그리고 섬김은 성전의 제의를 통해 구체화 된다. 제의를 위한 공간으로서 성전의 수직적 의미는 시편의 곳곳에서 드러난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편 150편 1절 상반절의 찬양 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찬양은 제의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³⁴ 또한 시편 48편 9절도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의의 공간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문의 *יְהוָה*(*담미누/우리는 생각[비교]했습니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개념으로서 제의의 행위와 연결된다.³⁵ 9절의 공동체의 행동은 성전 제의를 통해 시온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4-7절)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⁶

시편 48편 9절의 제의적 색채는 수평적 공간으로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백성이 구원을 경험하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 구원은 추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다. 본문 4-6절의 이방 왕들의 반응을 듣는 청자나 읽는 독자는 시온 앞에서 벌어진 전쟁을 상상할 수 있다. 물론 본문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떠올릴 만한 구체적인 시간에 대한 단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시온임을 고려한다면 시온에서 벌어진 몇 가지 역사적인 전쟁을 떠올릴 수 있다.³⁷ 또한 3절은 유다의 역사적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한다. 즉, 본문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야훼 전쟁이나 이방 민족의 전쟁과 같은 구약의 모티브와 시적 언어를 통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시하여(3절) 과거의 역사적인 승리를 신학화하고 신화화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역사적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현재에 실제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³⁸ 그리고 9절은 현재에 자리매김한 역사적 사건,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사건을 제의와 연결함으로써 성전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선언한다. 마찬가지로 시편 68편 5절도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성전이 지니는 수평적 공간의 의미를 함축한다. 본문에서는 성전을 *מִן* *מִן* (묘운 콧소/그의 거룩한 처소)로 표현한다.³⁹ 그리고 본문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문이 성전을 거룩한 처소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마련한 공간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편 90편 1절은

33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O. Loretz, *Psalmstudien: Kolometrie, Strophik und Theologie ausgewählter Psalmen* (BZAW 309;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2), 119-21.

34 A. Weiser, *Die Psalmen. Erster Teil: Psalm 1-60* (ATD 14; Göttingen: Neukirchen-Vluyn, 1950), 39.

35 H.D. Preuß, Art. *יְהוָה*, *ThWAT II*, 268-69.

36 김이근, 「시편(1)」(성서주석 1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18.

37 로이엔베르거(M. Leuenberger)는 본문이 기원전 734-732년 이스라엘-아람 연합군과 남유다 사이의 전쟁, 또는 기원전 701년 산헤립의 예루살렘 포위와 연결한다. M. Leuenberger, *윗글*, 154.

38 H. Spieckermann, *윗글*, 193.

39 H.D. Preuß, *윗글*, 1028.

하나님을 백성의 처소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뮐러(H.-P. Müller)는 하나님의 '도움'(Hilfe)으로 옮긴다.⁴⁰ 즉, 수평적 공간으로서 성전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마련하신 구원의 장소이다.

시편 48편에서 시온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자 구원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시온의 수평적 공간 이해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한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은 수평적 공간의 의미까지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시온 신학과 예루살렘 성전 신학을 같은 신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성급한 판단이다. 시온의 수평적 공간의 의미 안에는 이 두 신학이 서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수평적 공간으로 볼 때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시온은 거룩한 장소로 불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위해 주어진 삶의 공간이다. 성전과 시온을 간단히 비교하자면 성전은 하나님의 공간이지만 시온은 인간의 공간이다. 성전 신학과 구분되는 시온의 공간적 이해는 시온 신학이 그 도시 안에서 생활하는 거주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반영한다. 무엇보다도 시편 48편 12-13절은 이러한 시온 신학의 특징을 반영한다. 본문에서 시인은 시온을 돌며 그 모습을 후대에 전하라고 명하면서 특별히 언급하는 시온의 두 시설이 있다. 바로 12절의 **בִּמְצָדֵינוּ**(מצ대/방대)와 13절의 **בְּחַיִּל**(חיל/성벽)인데 두 시설물은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용도로 건설된다.⁴¹ 물론 본문의 기도자는 14절에서 진정한 시온의 보호자가 야훼 하나님임을 선포하지만, 이 두 개의 건축물들은 난공불락의 도시로서 시온을 상징하며, 시온 거주민의 안전을 위해 건설된 것들이다.⁴² 또한 13절에서 언급되는 **יְיָ אֱלֹהֵינוּ**(아르본/궁전)은 왕이 거주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의 주거를 위해 다층으로 건축된 건물을 가리킨다.⁴³ 이처럼 본문에서 언급

40 H.-P. Müller, "Der 90. Psalm. Ein Paradigma exegetischer Aufgaben", *ZThK* 81 (1984), 269.
 41 T.M. Steiner, "Perceived and Narrated Space", *OTE* 25/3 (2012), 693.
 42 윗글, 693.
 43 윗글, 693-94.

하는 세 가지 형태의 건축물들은 시온 신학이 거주민의 '안전한 삶'에 관심이 있음을 암시한다. 즉, 시온 신학은 인간의 삶의 공간으로서 시온에 관심이 있다. 이처럼 거주민이 중심이 되는 시온의 수평적 공간 이해는 시온을 의인화하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בְּיַדְּכֶם**(바트 치온/딸 시온)은 시온의 의인화 중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며,⁴⁴ 이 호칭이 언급되는 본문들의 문맥을 살펴보면 시온의 호칭은 예루살렘의 거주민⁴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온이 그들의 삶의 공간이라는 신학적 이해를 드러낸다(애1:6; 2:1, 4, 8, 10, 13, 18; 4:22).⁴⁶ 뿐만 아니라 시편 48편은 시온을 도시로 언급한다. 본문의 1절과 8절에서는 시온을 **עִיר אֱלֹהֵינוּ**(이르 엘로헤누/우리 하나님의 도시)로 표현하는데⁴⁷ 이러한 시온의 호칭은 시온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과 더불어 시온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임을 드러낸다.⁴⁸

3) 도시로서 시온과 시온 산

물론 시편 48편 2절은 시온을 하나님의 산으로 언급함으로써 시온의 공간적인 특징 중 수직적인 차원을 더욱 강조한다. 수직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수평적인 공간인 시온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축이며 동시에 신화적인 공간으로 기술된다.⁴⁹ 이처럼 시편 48편에서 하나님의 도시(성)로서 시온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으로서 시온이 나란히 놓여 있다. 나란히 놓인 시온의 두 가지 양상은 두 전통이 처음부터 하나였을 것이란 인상을 준다. 하지만

44 '딸 시온'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모두 26번 등장한다. 왕하 19:21; 시 9:14; 사 1:8, 10:32, 16:1, 37:22, 52:2, 62:11; 렬 4:31; 6:2, 23; 애 1:6, 2:1, 4, 8, 10, 13, 18, 4:22; 미 1:13; 4:8, 10, 13; 습 3, 14; 숙 2:10; 9:9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하경택,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온 - 시편 87편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Vol. 47 No. 2 (2015년 6월), 16.
 45 더 나아가 유대 민족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46 M. Gutmann-Grün, *Zion als Frau. Das Frauenbild Zions in der Poesie von al-Andalus auf dem Hintergrund des klassischen Piyyutus* (JudChr 23; Bern-Berlin-Bruxelles: Lang, 2008), 25, 각주 13.
 47 이러한 특징은 본문 2절의 **עִיר אֱלֹהֵינוּ**(키르앗/도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48 C.C. Ginz, *Die Ungefragten der Geschichte* (Berlin: LIT Verlag, 2014), 228.
 49 하경택, 윗글, 17.

킬(O. Keel)의 시온 신학에 대한 분석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양상은 서로 다른 전승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⁵⁰ 즉, 시온 신학의 지평이 확장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전승의 공간적 특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⁵¹ 본문의 ‘차폰’이라는 시온의 별칭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산’으로서 시온의 호칭은 우가랏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도 있다.⁵² 또한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산’으로서 시온의 신학적 양상이 시내 산 전승에서, 혹은 북이스라엘의 바산에 대한 이해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한다.⁵³ 즉, ‘시온 산’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신학적 양상은 도시로서 지니는 시온의 신학적 양상보다 후대에 시온 신학 안으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은 킬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시온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흔적을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 후 기혼에 거주한 것에서 찾으려 한다(삼하 5:7,11).⁵⁴ 이후에 시온이라는 이름은 위치와 기능적 중요성으로 인해 ‘산’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신학적 의미가 확장된다.⁵⁵ ‘산’으로서의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곳으로서 시온이 지니는 종교적인 우월성과 공간적으로는 자신의 수직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온 산’이라는 명칭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온 자체가 헤르몬과 시내 산과 같이 하나님의 거처로 이해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키르벳 벳 라이’(Khirbet bet layy)의 비문에서 시온 신학을 떠올릴 만한

50 O. Keel, *Jerusalem und der eine Gott: Eine Religions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34-35.
 51 시온 신학의 확장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C. Körting, *윳글*, 227.
 52 H. Niehr, *Ba'alsamem: Studien zu Herkunft, Geschichte und Rezeptionsgeschichte eines phönizischen Gottes* (OLA 123; Leuven: Peeters, 2003), 22.
 53 이 논의에 대해서는 파이퍼(H. Pfeiffer)의 시편 68편 연구사를 참고하라. H. Pfeiffer, *Jahwes Kommen vom Süden* (FRLANT 21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5), 213-15.
 54 O. Keel, *Die Geschichte Jerusalems und die Entstehung des Monotheismus: Teil 1* (OLB 4/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61.
 55 윳글, 61-62.

기록을 찾을 수 있다.⁵⁶ 비문에서는 유다의 산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것이라 선언하는데 이를 두고 수직적 차원을 포괄하는 시온 신학의 유래가 기원전 7세기 중반이었을 것이라 추론하기도 한다.⁵⁷ 하지만 이 비문에서는 ‘산’을 하나님의 성소로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법으로서 ‘온 땅’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유다의 영토를 가리킨다.⁵⁸ 이는 본문이 산이란 개념을 수직적 공간이 아니라 수평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수직적 의미의 시온 산이란 호칭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시온 산이란 호칭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해되던 시기를 논의할 때 방케의 견해는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적으로는 성전으로만 한정되어 있었고, 이후 시온-예루살렘 중심의 신학이 확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도시 전체로 확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미 이사야의 시기에 시온 산을 하나님의 거처로 이해했을 것이라 추정한다(사8:18).⁵⁹ 즉, 시온에 붙은 산이라는 수식어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한정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정이 가능하다.

위의 논의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시온은 태동에서부터 성소로서 산이 지니는 의미를 포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의 시온 신학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 ‘시온’에 관한 신학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시온 산이라는 명칭은 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확장하면서 북쪽 구릉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온 신학은 시내 산 전승에서 나타나는 ‘성소로서 산’의 개념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56 “아훼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유다의 산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것이로다.” 원문은 다음을 참고하라. J. Renz/W. Röllig (eds.), *Handbuch der althebräischen Epigraphik. Bd. 3: Texte und Tafeln* (Darmstadt: Wiss. Buchges, 1995), 19.
 57 이 비문의 시기는 하르텐슈타인(F. Hartenstein)의 글을 참고하라. F. Hartenstein, *Das Archiv des verborgenen Gottes. Studien zur Unheilsprophetie Jesajas und zur Zionstheologie der Psalmen in assyrischer Zeit* (BThSt 74; Neukirchen-Vluyn: Neukirchner, 2011), 127.
 58 윳글, 128.
 59 G. Wanke, *Die Zionstheologie der Korachiten in ihrem traditionsgeschichtlichen Zusammenhang* (BZAW 97; Berlin/New York: de Gruyter, 1964), 34.

시온 산이라는 명칭은 수직적 공간으로서 시온을 강조하는 신학적 용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⁶⁰

4.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과 시온

1)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

앞서 확인하였듯이 시온 신학은 시온을 수직적 공간과 수평적 공간이 만나는 세상의 축으로 서술한다. 하지만 초기의 시온 신학에서는 시온 자체를 하나님 임재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근동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의 수직적인 공간으로 이해되었다. 초기의 시온 신학은 인간의 영역인 수평적 공간과 하나님의 영역인 수직적 공간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초기 시온 신학의 특징은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과 궤를 같이 하며, 이는 시온 신학이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의 영향 아래 있음을 뒷받침한다.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의 특징은 도시 전체에 대한 구획에서 드러난다. 고대 근동의 도시들은 성벽으로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며, 성벽 내부는 인간들의 삶의 영역이고 성벽 외부는 거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자리하는 영역이다.⁶¹ 성벽과 성문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거주민을 차단한다. 이러한 고대 근동 도시의 공간적 묘사는 수평적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한다. 하지만 거주민에게 보호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것은 성벽과 성문만이 아니다. 바로 안전의 핵심은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신전이다. 고대 근동의 도시에서 신전은 거의 대부분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다.⁶² 하지만 사람의 영역인 도시와는 구분되는 거룩한 장소다.⁶³ 이처럼 도시와 그 안에 위치한 성전이 서

로 분리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신전의 구조는 분리된 것 같은 두 공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바로 신전은 구조적으로 '도시안의 도시'(Stadt in der Stadt)로 설명할 수 있다.⁶⁴ 신전 외부의 담과 문과 계단과 부속 건물은 도시를 상징하며 그 중심에 '신전 자신이 위치'한다.⁶⁵ 도시를 닮은 신전의 구조는 신전이 도시의 안전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장소임을 암시한다.

또한 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신전은 공간적으로 하늘과 지하 세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축이다.⁶⁶ 이는 신전이 우주적 공간의 중심이며 동시에 신전 자체가 우주 전체를 반영함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전도 같은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성전의 지성소에 놓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상징하며⁶⁷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혼돈(Chaos)을 제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시29:10).⁶⁸ 혼돈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도시의 거주민의 안전과 연결된다.⁶⁹ 혼돈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의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시편 84편 3절은 성전의 제단에 동지를 튼 작은 새들을 묘사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안전함과 평안을 의미하며,⁷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64 M. Lichtenstein, *윗글*, 248; R.G. Kratz, *윗글*, 428.

65 R.G. Kratz, *윗글*, 428.

66 Ch. Koch, *Gottes himmlische Wohnstatt* (FAT 119; Tübingen: Mohr Siebeck, 2018), 17.

67 D.H. Fletcher, *Psalms of Christ: The Messiah in Non-Messianic Psalms* (Eugene, Oregon: Wipf & Stock, 2018), 48-49.

68 M. Görg, "Gott als König: Die Bedeutung einer komplexen Metapher für das Gottesverständnis in den Psalmen", H. Irsigler (ed.), *Mythisches in biblischer Bildsprache* (Freiburg/Basel/Wien: Herder, 2004), 84-85.

69 R.G. Kratz, *윗글*, 429.

70 C. Körting, *윗글*, 91. 시편 46편 4절은 성전에 흐르는 시내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고대 근동의 성전 정원과 유사성을 지닌다. 고대 근동의 성전 정원은 신의 우주적 통치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장소로서 묘사된다. B. Janowski, "Die heilige Wohnung des Höchsten. Kosmologische Implikationen der Jerusalemer Tempeltheologie", O. Keel/E. Zenger (eds.), *Gottesstadt und Gottesgar242 ten. Zu Geschichte und Theologie des Jerusalemer Tempels* (QD 191; Freiburg: Herder, 2002), 50-57. 다른 구약의 본문(겔 47:1-12; 욕 3:18; 숙 14:8)에서도 성전의 물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성전의 물이 지나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송승인, "상징/문자 결정 지표를 활용한 스가랴 14:8, 요엘 3:18, 에스겔 47:1-12에 등장하는 물의 의미에 대한 재고", 『구약논단』 제26권 1호 통권 75집 (2020년 3월), 124-34.

60 시온 신학에서 도시로서 시온의 개념과 성소로서 시온 산의 개념을 결합한 저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키르벳 베타이(Khirbet bet layy)'의 비문에 함축된 시온 신학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두 개념을 결합한 저자의 의도가 예루살렘의 정치적, 종교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61 R.G. Kratz, *윗글*, 426.

62 M. Lichtenstein, *윗글*, 240.

63 R.G. Kratz, *윗글*, 428.

평안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고대 근동의 성전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⁷¹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에서 신전은 도시 거주민의 안전과 풍요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신전은 도시의 중앙 혹은 도시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다.⁷² 도시 신학에서 신전은 수평적인 공간의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 이처럼 신전이 신학적으로 도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성전 신학과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을 같은 신학으로 여기게 하는 근거는 아니다. 다만 도시 신학은 성전 신학의 도움으로 자신의 안전과 풍요를 확보한다. 또한 성전 신학은 성전을 도시와 완전히 구분된 공간으로 이해한다. 도시가 인간의 영역이라면 성전은 철저하게 신의 영역이다. 이는 성전 신학이 도시 신학과는 다른 신학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처럼 거주민을 위하는 도시 신학과⁷³ 신을 위하는 성전 신학은 서로의 방향성이 다르지만 의존적 관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초기의 시온 신학도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 신학의 도움으로 거주민의 안전과 풍요를 보장받는다.

2) 하나님의 성

시온 신학과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는 시편 48편 1절의 אֱלֹהֵינוּ בְּעִיר אֱלֹהֵינוּ (베이크 엘로헤누/우리 하나님의 성[도시]에서)이란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의 하나님의 성이란 표현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동시에 도시를 하나님의 소유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낸다. 그런데 도시를 신의 소유로 표현하는 것은 고대 근동 도시

신학의 공통적 특징이기도 하다. 고대 근동의 주요 도시는 도시의 신으로 불리는 자신의 신들을 섬긴다. 물론 스피커만(H. Spieckermann)이 주장하듯이 시편 48편의 1절은 하나님을 도시의 신이 아닌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시온을 ‘하나님의 성’(Gottesstadt)으로 노래한다.⁷⁴ 이는 분명히 고대 근동의 도시의 신이라는 개념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이란 신학적 개념은 고대 근동의 도시의 신이란 관념에서 기원한다.⁷⁵

고대 근동의 도시 중 정치·종교적 중심지는 그 도시와 연결되는 신이 존재한다. 도시와 연결되는 신은 도시의 신으로 불리며 그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⁷⁶ 그리고 도시의 신으로 인해 그의 도시와 신전은 연결된다. 도시의 신으로 한데 묶인 도시와 신전은 단순히 수직적인 공간과 수평적인 공간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신전은 도시 신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신적 보호 아래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말했듯이 신화적 영역을 질서로 다스리는 것은 수평적 공간의 질서와 연결된다. 즉, 도시라는 수평적 공간에 위치한 신전을 통해서 도시의 신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인 수직적 공간을 다스리고 있으며 도시는 그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대 근동의 도시의 신 개념은 성전이 도시의 거주민을 위해 존재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결론적으로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은 거주민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성전 신학에 의존하지만, 성전 신학과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를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이란 개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시 사상과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 사이에는 분명한 질적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초기 시온 신학이 도시 신학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71 K.-H. Golzio, *Der Tempel im alten Mesopotamien und seine Parallelen in Indien: eine religionshistorische Studie* (Leiden: Brill, 1983), 62.

72 지구라트의 성전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건설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도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73 도시 신학에서 도시의 거주민이 신에게 원하는 것은 안전한 삶이다. 이것이 고대 근동 도시 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J. Oorschot, "Die Stadt - Lebensraum und Symbol. Israels Stadtkultur als Spiegel seiner Geschichte und Theologie", M. Witte (ed.), *Gott und Mensch im Dialog* (BZAW 345/I: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4), 170-73.

74 H. Spieckermann, "Stadtgott und Gottesstadt. Beobachtungen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ib.* 73 (1992), 28-31.

75 J. Oorschot, *윗글*, 171-73.

76 H. Spieckermann, *윗글*, 10-11.

5. 맺는 말

구약에서 시온은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거처로서 예루살렘 성전 신학과 같은 신학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특징은 시온 신학과 성전 신학을 같은 신학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주된 근거였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온 신학과 예루살렘 성전 신학의 공간적 이해를 비교할 때 두 신학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전 신학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며, 시온 신학에서 시온은 '도시의 거주민을 위한 공간'이다. 두 신학 공간에 대한 이해는 두 신학 간의 명확한 방향성의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시온 신학이 예루살렘 성전 신학과는 다른 별개의 전통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리고 시온 신학의 기초에 관한 흔적은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⁷⁷ 도시 신학의 핵심은 거주민의 안전한 삶에 있다. 거주민의 안전한 삶은 도시의 신의 다스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의 신전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도시 신학은 성전 신학의 도움으로 거주민의 안전을 보장하지만 도시 신학과 성전 신학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시 신학의 특징은 시온 신학이 예루살렘 성전 신학에서 기원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며, 더 나아가 시온 신학의 확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77 시온 신학과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과의 유사성은 시온 신학이 고대 근동의 도시 신학에서 유래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세계가 비슷한 신학적 사상을 공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밀접한 관계는 1990년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 'Religionsgeschichtliche Beziehungen zwischen Kleinasien, Nordsyrien und dem Alten Testament' 이후에 출판된 책의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 Janowski/K. Koch/G. Wilhelm (eds.), *Religionsgeschichtliche Beziehungen zwischen Kleinasien, Nordsyrien und dem Alten Testament: Internationales Symposium Hamburg 17.-21. März 1990* (OBO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VII-IX.

6. 참고문헌

- 강승일,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간", 『구약논단』 제15권 4호 통권 34집 (2009년 12월), 126-43.
- 김이곤, 『시편(1)』 (성서주석 1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창대, "주위 문맥에서 본 시 46편의 시온 신학", 『구약논단』 제15권 2호 통권 32집 (2009년 6월), 63-82.
- 박중수, "시편 74편에 나타난 시온전승", 『구약논단』 제9집 (2000년 10월), 167-89.
- 송승인, "상징/문자 결정 지표를 활용한 스가랴 14:8, 요엘 3:18, 에스겔 47:1-12에 등장하는 물의 의미에 대한 재고", 『구약논단』 제26권 1호 통권 75집 (2020년 3월), 120-47.
- 왕대일, "시편의 신학: 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제15권 2호 통권 32집 (2009년 6월), 10-29.
- 하경택, "제사장-왕'을 통한 야훼의 통치 - 시편 110편의 해석과 적용", 『구약논단』 제23권 4호 통권 66집 (2017년 12월), 150-82.
- _____,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온 - 시편 87편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Vol. 47 No. 2 (2015년 6월), 13-41.
- 홍성혁, "요엘 4장의 묵시적 종말론 모티프와 그 기능: 야훼의 시온 통치를 통한 새 세상 도래 부각", 『구약논단』 제20권 2호 통권 52집 (2014년 6월), 186-216.
- Eißfeld, O., *Baal Zaphon, Zeus Kasios und der Durchzug der Israeliten durchs Meer* (Halle: M. Niemeyer, 1932).
- Fletcher, D.H., *Psalms of Christ: The Messiah in Non-Messianic Psalms* (Eugene, Oregon: Wipf & Stock, 2018).
- Fohrer, G., *Studien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und Geschichte* (1949-1966) (BZAW 115; Berlin: de Gruyter, 1969).

- Ginz, C. C., *Die Ungefragten der Geschichte* (Berlin: LIT Verlag, 2014).
- Golzio, K.-H., *Der Tempel im alten Mesopotamien und seine Parallelen in Indien: eine religionshistorische Studie* (Leiden: Brill, 1983).
- Görg, M., "Gott als König: Die Bedeutung einer komplexen Metapher für das Gottesverständnis in den Psalmen", H. Irsigler (ed.), *Mythisches in biblischer Bildsprache* (Freiburg/Basel/Wien: Herder, 2004), 64-102.
- Gunkel, H.,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 Gutmann-Grün, M., *Zion als Frau. Das Frauenbild Zions in der Poesie von al-Andalus auf dem Hintergrund des klassischen Piyyuts* (JudChr 23; Bern-Berlin-Bruxelles: Lang, 2008).
- Hartenstein, F., *Das Archiv des verborgenen Gottes. Studien zur Unheilsphe-
phetie Jesajas und zur Zionstheologie der Psalmen in assyrischer Zeit* (BThSt 74; Neukirchen-Vluyn: Neukirchner, 2011).
- Irsigler, H., "Der Königsgott erscheint. Zur Syntax und Semantik von Psalm 29", H. Rechenmacher (ed.), *Im Memoriam Wolfgang Richter* (ATSAT 100; St. Ottilien: Eos Verlag, 2016), 169-204.
- Janowski, B., "Die heilige Wohnung des Höchsten. Kosmologische Implikationen der Jerusalemer Tempeltheologie", O. Keel/E. Zenger (ed.), *Gottesstadt und Gottesgar242 ten. Zu Geschichte und Theologie des Jerusalemer Tempels* (QD 191; Freiburg: Herder, 2002), 24-68.
- _____, "Die Einwohnung Gottes in Israel. Eine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 Skizze zur biblischen Schekina-Theologie", B. Janowski/E. Popkes (eds.), *Das Geheimnis der Gegenwart Gottes* (WUNT 318; Tübingen: Mohr Siebeck, 2014), 3-40.
- _____, "Der thron auf dem Kreis der Erde (Jes 40,22): Zur Logik des biblischen Weltbilds", B. Janowski/Chr. Schwöbel (eds.), *Der entgrenzte Kosmos und der begrenzte Mensch* (Neukirchen-Vluyn: Neukirchner, 2016), 1-34.
- _____/Koch K./Wilhelm G. (eds.), *Religionsgeschichtliche Beziehungen zwischen Kleinasien, Nordsyrien und dem Alten Testament: Internationales Symposium Hamburg 17.-21. März 1990* (OBO 12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Jeremias, J., *Das Königtum Gottes in den Psalmen* (FRLANT 14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7).
- Keel, O., *Die Geschichte Jerusalems und die Entstehung des Monotheismus: Teil 1* (OLB 4/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61.
- _____, *Jerusalem und der eine Gott: Eine Religions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4).
- Knohl, I., "Psalm 68: Structure, composition and geography",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2/5 (2012), 1-21.
- Koch, Ch., *Gottes himmlische Wohnstatt* (FAT 119; Tübingen: Mohr Siebeck, 2018).
- Koch, K., "Ḥazzi-Ṣafôn-Kasion: Die Geschichte eines Berges und seiner Gottheiten", F. Hartenstein (ed.), *Der Gott Israels und die Götter des Orients. Religionsgeschichtliche Studien II* (FRLANT 21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7), 119-70.
- Körting, C., *Zion in den Psalmen* (FAT 48; Tübingen: Mohr Siebeck, 2006).
- Kratz, R. G., "Gottesräume: Ein Beitrag zur Frage des biblischen Weltbildes", *ZThK* 102 (2005), 1-34.
- Krusche, K., *Göttliches und irdisches Königtum in den Psalmen* (FAT II 109; Göttingen: Mohr Siebeck, 2019).
- Leuenberger, M., "Großkönig und Völkerkampf in Ps 48 Zur historischen,

-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lichen Verortung zweier zionstheologischer Motive”, A. Grund (ed.), *Ich will dir danken unter den Völker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Haus, 2013), 142-56.
- Lichtenstein, M., *Von der Mitte der Gottesstadt bis ans Ende der Welt: Psalm 46 und die Kosmologie der Zionstradition* (WMANT 139; Neukirchen-Vluyn: Neukirchner, 2014).
- Lipinski, E., Art. תְּהִלָּה, *ThWAT VI*, 1093-1102.
- Loretz, O., *Psalmstudien: Kolometrie, Strophik und Theologie ausgewählter Psalmen* (BZAW 309;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2).
- Müller, H.-P., “Der 90. Psalm. Ein Paradigma exegetischer Aufgaben”, *ZThK* 81 (1984), 265-85.
- Niehr, H., *Ba’alšamem: Studien zu Herkunft, Geschichte und Rezeptionsgeschichte eines phönizischen Gottes* (OLA 123; Leuven: Peeters, 2003).
- _____, “Die rapi’ūma/rephā’im als konstitutives Element der westsemitischen Königsideologie. Herkunft - Rezeptionsgeschichte - Ende”, L.C. Jonker/G.R. Kotzé (eds.), *Congress Volume Stellenbosch 2016* (VT, S 177; Leiden-Boston: Brill, 2017), 143-78.
- Oorschot, J., “Die Stadt - Lebensraum und Symbol. Israels Stadtkultur als Spiegel seiner Geschichte und Theologie”, M. Witte (ed.), *Gott und Mensch im Dialog* (BZAW 345/I; Berlin/New York: de Gruyter, 2004), 155-79.
- Pfeiffer, H., *Jahwes Kommen vom Süden* (FRLANT 21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5).
- Preuß, H.D., Art. תְּהִלָּה, *ThWAT II*, 266-77.
- _____, Art. תְּהִלָּה, *ThWAT IV*, 1027-30.
- Rebiger, B., “Das Leitermotiv in der Hekhalot-Literatur”, K. Herrmann (ed.), *Jewish Studies Between the Disciplines - Judaistik zwischen den Disziplinen* (Leiden/Boston : Brill 2003), 226-42.
- Rechberger, U., “Zwischen individueller Klage und universalem Lob: Die Psalmen 22-24 als ein für den Psalter exemplarisches Itinerar eines Gebets-Pilgerweges”, U. Berges (ed.), *Zur Theologie des Psalters und der Psalmen* (BBB 18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9), 45-68.
- Renz, J./Röllig, W. (eds.), *Handbuch der althebräischen Epigraphik. Bd. 3: Texte und Tafeln* (Darmstadt: Wiss. Buchges, 1995).
- Seybold, K., *Die Psalmen* (HAT 1/1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 Spieckermann, H., *Heilsgegenwart. Eine Theologie der Psalmen* (FRLANT 14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_____, “Stadtgott und Gottesstadt. Beobachtungen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Bib.* 73 (1992), 1-31.
- Steiner, T.M., “Perceived and Narrated Space”, *OTE* 25/3 (2012), 685-704.
- Wanke, G., *Die Zionstheologie der Korachiten in ihrem traditionsgeschichtlichen Zusammenhang* (BZAW 97; Berlin/New York: de Gruyter, 1964), 34.
- Wanke, R.M., *Praesentia Dei: Die Vorstellungen von der Gegenwart Gottes im Hiobbuch* (BZAW 421; Berlin/New York: de Gruyter, 2013), 35-46, 72.
- Weiser, A., *Die Psalmen. Erster Teil: Psalm 1-60* (ATD 14; Göttingen: Neukirchen-Vluyn, 1950).

검색어

시온

예루살렘 성전

수직적·수평적 공간

시온 신학

성전 신학

도시 신학

City and Temple: A Study on the Origin of Zion Theology

Jaeduck Seo

Friedrich Schiller University Jena, Dr.theol.

Since the academic study on Zion theology began, the terms ‘Temple theology’ and ‘Zion theology’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However, examining the spatial understandings of Zion theology and Temple theology, one can observe different aspects exist between these two theologies. Such different aspects seem to show that two theologies have originated from different traditions.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clarify the origin of Zion theology by comparing the spatial aspects of ‘Zion theology’ and ‘Temple theology’ with a focus on the Psalms.

The Old Testament articulates the Temple and Zion as the center of the world, that is, as the place that connects the mythical world with the human world. The Jerusalem Temple and Zion as vertical spaces are where the transcendental and mythical heaven and the human world are interconnected. Especially the vertical meaning of Zion is associated with the Jerusalem Temple in Zion. Besides, the Jerusalem Temple and Zion

are also known for their horizontal aspects because, while the temple is a transcendental space, it provides a place for the people to perform rituals in the human world, and Zion is where humans live. Thus Zion has been recognized for its ‘vertical’ as well as ‘horizontal’ features because of the two concepts: (1) Zion as a city and (2) Mt. Zion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Jerusalem Temple. These two concepts show that Zion theology has its origin in the city th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In the city th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1) the Temple exists for the protection of the city; (2) the city and the Temple are bound together by gods of the city; and (3) gods also exist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ity. Thus the city th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is focused on the inhabitants of the city and is different from the God-oriented Temple theology. Such a feature of the city theology shows that Zion theology originated from a different tradition than the Temple theology.

Keywords

Zion

the Jerusalem Temple

vertical-horizontal space

Zion theology

Temple theology

city theology

- 투고일: 2020년 2월 17일
- 심사일: 2020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

www.kci.go.kr